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7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4.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빛나가지 말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의지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분주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바람에 나무끼는 폐비닐처럼 스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영혼의 포도주 향아리는 빈지 오래입니다.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향아리 삼아 묵은 물을 버리고, 새 물을 갈아 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한껏 차지하려던 욕심, 그럴싸하게 보이려던 지난날의 몸짓들을 부끄러워하며, 알몸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여시어 당신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어 당신의 부름에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물거리는 우리 영혼의 심지에 물을 당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골3:9-10
인도자	
♠ 교 독 문	10. 시편 27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한지혜 선생 II. 한완식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4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함께	
성경봉독	I. 약 2:14-26
다함께	
	II. 고후1:18-22
	박석희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이 세계 절반 나
	김재흥 목사
	II. 아멘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15. 뜻 없이 무릎 꿇는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십자가만이 생명이고 희망임을 삶으로 증언하며
사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함 께 : 주님, 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시고, 내면의 두려움
과 의혹을 이기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하늘의 평화와 빛이 이 땅에 유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멘'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28)	신명기 강해(9)
기도:김재영 집사/권혁순 집사(25)	기도 : 임정자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지호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박혜경 권사

7월	영접위원	김철수	이용한	이호원	최종원	박홍재	안경숙
	헌금위원	윤석철	김준호	한상익	구성실	임정자	오성희

뿌리만 마르면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마7:3-5)

“나보다 더 큰 내가 눈 속에 들어 있어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을 빼내라시니, 나보다 더 큰 것을 어떻게 빼냅니까?”

“빼낼 수 있다. 빼낼 수 있으니까 빼내라고 했다. 누가 너에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면, 시킨 쪽이 잘못 아니겠느냐?”

“그러니 시방 그 방법을 여쭙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태산처럼 커도 네 눈(몸) 속에 있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빼낼 수 있는 것이다.”

“글세, 어떻게 말입니까?”

“스스로 길을 찾아라. 길은 처음부터 거기 있다.”

“답답하군요.”

“답답하구나.”

“.....”

“.....”

대화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 부근에서 머뭇거리는데, 문득 집보다 더 큰 나무가 뜰 안에 서 있는 게 보인다.

웁다! 집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울 안에 서 있구나! 저놈이 ‘들보’다. 어떻게 저놈을 뽑아낼 수 있을까 저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려면 집을 허물어야 할 터인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

이 때 석화(石火)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래, 내 비록 저 나무를 들어 낼 수는 없지만 뿌리에 물을 주지 않을 수는 있으려다! 무아(無我) 방유룡(方有龍) 신부 말씀이,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나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하셨지. 뿌리만 마르면 태산만큼 큰 나무도 뽑힌 거나 마찬가지 아니랴?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이어진다.

“나쁜 생각 나쁜 감정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뿌리를 마르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물을 주고 있는 한심한 제 꼬락서니올시다. 동의하고 않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느새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저를 어찌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 일찍이 늘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았더냐?”

“어떻게 하면 늘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예, 입 벌리고 감나무 아래 누워 있지 그러느냐?”

“제 의지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저 자신에 낙심도 되고, 이제 그만 질려 버렸습니다.”

“그래도 네 선한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

“아주 적은 부분이 있긴 하겠지요.”

“됐다. 바로 그게 처음부터 네 몸 속에 감추어 두신 그분의 씨앗이다. 그 적은 부분을 자꾸만 움직여라. 씨앗을 잘 키우라는 얘기다. 그 부분을 지렛대로 삼아 마침내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예부터 모든 수도자가 바로 그 길을 걸었다. 쟁기를 잡았거든 놓지 말고 오직 앞으로 나아갈 따름이다.”

“그렇게 다짐하다가도 자신을 돌아보면 금새 낙심천만이 됩니다.”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내 길에 합당한 사람이 못 된다. 자신을 보되 그냥 보기만 하여라. 그에 대하여 걱정할 것도 없고 연민할 것도 없다. 네가 걱정함으로 해서 머리카락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그 물건이다. 뿌리에 대하여도 걱정할 것 없다. 아무리 거대하고 깊어도 뿌리란 밖으로 드러나면 시들고 마는 법. 자신의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드러나게 될 때, 오히려 고맙게 여기며 그것이 더 잘 드러나도록 협조하여라. 뿌리에 물을 주지 않는 일과 뿌리를 드러내는 일을 아울러 진행하되, 시간이 없구나, 한눈 팔지 말고 정진 또 정진하여라. 애쓰는 자가 나라를 차지하느니……”

“……”

“……”

오늘 생각이 많았다. 쉬자. 뜰 안 큰 나무 가지 사이로 태양이 눈부시구나!

—이 아무개, 『길에서 주운 생각들』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바뀔 수 있다

푸짐하게 디저트를 내오면, 배가 불러도 물리는 일이 거의 없다.
남들이 곁에 있을 때에는 경건하게 예배드린다.
몇 시간씩 앉아도 있다. 그러나 혼자서 기도할 때면 잠시 허리 숙였다가 잼싸게 일어난다. 일어나는 길로 비어 있는 식도(食道)를 채우려 달려간다.

그러나, 이런 품성(品性)이 바뀔 수 있다!
땅 속 물이 뿌리 타고 올라가 나무로 되고 풀잎이 짐승 만나 짐승 되듯이
사람 또한 무거운 육신(肉身) 배낭 내려놓고
빛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13세기 아프가니스탄 시인 루미

* 무거운 육신 배낭 내려놓기 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빛이 될 수도 어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모든 만남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다면, 우리는 빛의 알갱이가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겠지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박창운 허정윤 홍순구 안홍숙 이한림 김명희 이인웅 최종원
김 극 박옥순 박정숙 길민수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유증희 조항범 김명순 박석희 조항미 황원순 황자순
박경원 조동길 배부례

감사헌금:

하재두 최동운 박찬정 김애경 박성수 안성호 박옥순 김지윤 김진경
송동준 무명1

생일감사헌금: 한상익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삼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교육부회의** : 오후 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2. **원로모임** : 아름다운 원로 모임이 22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귀한 친교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3. **수양회** : 8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수양회(충주제일교회 수양관)에 참석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시오. 이번 수양회 주제는 '섬, 평화의 시작'입니다.
4. **기획위원회** : 오후 집회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5. **신앙실천** :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말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그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